



순간의 승부

19일 중국 광저우 광둥체육관에서 펼쳐진 아시안게임 펜싱 남자 사브르 준결승전에서 구본길(오른쪽)이 오은석을 상대로 공격하고 있다. 구본길 결승 진출. /연합뉴스

구본길·김원진·남현희·김혜림 남녀검객 이틀새 금 4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선 한국 남녀 펜싱은 18~19일 각각 금메달 2개씩을 따내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남자 펜싱의 '무서운 신예' 구본길(21·동의대)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본길은 19일 광저우 광둥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중만(중국)을 15-1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구본길은 생애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감격을 누렸다. 한국 여자 펜싱의 간판스타 남현희(29·성남시청)도 아시안게임 여자 플뢰레 개인전 2연패를 달성했다. 남현희는 이날 펜싱 여자 플뢰레 개인전 결승에서 천진연(중국)을 15-3으로 격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던 남현희는 이로써 이 종목 2연패를 이뤘다.

한국은 18일 펜싱 여자 사브르 결승에서 김혜림(안산시청)이 오신영(홍콩)을 157로 완파하고 첫 금메달 소식을 알리더니 남자에게 결승전에 진출한 김원진도 홍콩의 리귀제를 1311로 제치고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첫 금메달 소식은 김혜림이 알려왔다. 김혜림은 결승 상대인 오신영을 상대로 초반부터 빠른 어께 공격을 통해 내리 3점을 뽑으며 승기를 잡았다.

1회전을 84로 가볍게 끝낸 김혜림은 두 차례나 3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157로 완승하며 경기시작 1분 13초 만에 금메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네번째 금빛 발차기

63kg 이대훈·62kg 노은실



태권도 국가대표팀의 '막내' 이대훈(18·한성고)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대훈은 19일 중국 광저우 광둥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태권도 남자 63kg급 결승에서 나차폰통(태국)을 10-9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이대훈은 경기 초반 나차폰통의 발차기에 턱을 맞으며 0-3으로 뒤졌지만, 접근전에서 순식간에 5점을 만회한 뒤 경기 종료까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대훈은 전날 여자 57kg급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이상혜(26)와 남자 87kg초과급에서 우승한 허준년(23·이상 삼성에스원), 그리고 앞서 62kg급에서 금빛 발차기를 날린 노은실(21·경희대)에 이어 이번 대회 태권도에서 한국 선수단에 네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노은실은 이날 여자 62kg급 결승에서 라헤레 아세마니(이란)를 14-2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선배의 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얻은 태권도 국가대표 장세욱(19·용인대)은 남자 68kg급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모하마드 바게리 모타메드(이란)에게 4-6으로 저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대훈> <노은실>

지난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안선수권대회 결승에서도 0-3 패배를 안긴 바게리 모타메드에게 설욕을 벌려 왔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대표선발 최종전에서 2위를 했던 장세욱은 아시안게임 대표였던 학교 선배 김용현(22)이 지난달 말 훈련 중 오른쪽 정강이뼈를 다쳐 대신 이번 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지만 금메달 꿈은 이루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블링 2인조 金·銀스트라이크



한국 불링의 베테랑 최진아(26·대전광역시청)와 강혜은(26·창원시청)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인조 금메달을 따냈다.

최진아-강혜은 조는 18일 광저우 테너 불링장에서 벌어진 대회 불링 여자 2인조 결승에서 거침 없는 스트라이크 행진을 벌인 끝에 2천687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순연희(26·용인시청)와 홍수연(26·서울시청)은 2천664점을 얻어 최-강 조와 23점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계 출전했던 황선옥(22·평택시청)과 전은희(21·한국체대) 조는 2천603점을 기록해 4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3인조와 5인조 등 남는 경기를 이끌어갈 에이스 최진아의 부활에 고무됐다. 최진아는 "첫 경기에서는 레인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 고전했는데 이제 슬럼프는 모두 벗어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계 출전했던 황선옥(22·평택시청)과 전은희(21·한국체대) 조는 2천603점을 기록해 4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3인조와 5인조 등 남는 경기를 이끌어갈 에이스 최진아의 부활에 고무됐다.

최진아는 "첫 경기에서는 레인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 고전했는데 이제 슬럼프는 모두 벗어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미란 금 번쩍... AG 징크스 깼다



교통사고 부상 극복·자신과의 싸움서 승리

세계 여자역도의 전설 장미란(27·고양시청)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상을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였다.

장미란은 19일 중국 광둥성 동관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최중량급(+75kg급)에서 인상 130kg, 용상 181kg을 들어올려 합계 311kg을 들어올려 1위에 올랐다. 최고 라이벌로 꼽힌 중국의 명수핑(21)은 인상 135kg, 용상 176kg, 합계 311kg을 기록해 장미란과 같은 중량을 기록했으나 몸무게가 더 나가서 2위로 밀렸다.

장미란이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를 제패하면서 3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해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다. 장미란은 인상 경기 1차 시기에서 130kg에 도전했지만 왼팔이 굵으며 심판들에게 실재 판정을 받았다. 2차 시기에 다시 도전한 130kg을 들어올린 장미란은 3차 시기에서는 중량을 4kg 높인 134kg에 도전했지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바벨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인상 1위는 135kg을 성공시킨 카자흐스탄

의 그라보베츠카야, 2위는 같은 135kg을 들어올린 중국의 명수핑이 기록했다.

하지만 장미란이 용상 1차시기를 175kg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반면 명수핑은 175kg을 드는 데 실패하면서 장미란이 오히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2차시기를 명수핑이 176kg을 들어올린 가운데 장미란은 2차시기를 181kg에 성공해 다시 역전에 성공했다.

승부는 마지막 3차시기를 가렸다. 명수핑은 3차시기를 실패하면서 장미란의 금메달이 확정됐다. 장미란은 3차시기를 세계신기록에 도전했지만 어렵게 실패했다.

장미란은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부상이라는 가장 상대하기 힘든 적과 싸

워야 했다.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후 연말에 교통사고를 당해 동계훈련을 전혀 하지 못했다.

지난 9월 터키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출국 열흘 전에는 허리를 다쳐 아예 바벨을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몸상태가 온전치 않던 장미란은 터키 세계선수권대회가 2012년 런던올림픽의 예선을 겸해 치러졌기 때문에 한국의 출전 쿼터를 하더라도 더 따내기 위해 출전을 감행했다. 자신의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를 위협이 아닌 팀 동료들을 위한 결정이었다. 장미란은 부상 중진 몸을 이끌고 3위를 기록하며 한국이 대회 종합 7위에 오르는데 기여 했다.



장미란은 세계선수권 이후 아시안게임에 맞춰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 올렸고 자신의 최고 신기록인 326kg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명수핑의 추격을 따돌리며 값진 금메달을 따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하이라이트

태권전사들이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1주일째인 20일 마지막 금빛 발차기에 나선다.

한국 태권도는 전체 16종목 중 최종 네 체급이 열리는 20일 남자 54kg급에 나서는 김성호(용인대)와 여자 73kg 이상급의 오정아(인천시청)가 금메달 가시권에 들어있다.

지소연 골사냥... 여자축구 남북대결

부활을 노리는 북조선 남자 49kg의 신중훈(서울시청)이 아시아 정상 등극을 타진한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때 '노골드' 수모를 겪었던 한국 복싱의 대표 주자로 나선 신중훈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금빛 펀치를 날리

고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본 좋게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4년 전 도하 대회 때 남녀 개인·단체전 우승을 석권했던 골프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2회 연속 네 종목 싸움이에 도전한다.

구기 종목에서 여자 축구가 북한과 준결승에서 남북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